

헛되도다

전도서(1:1-11)

헛되도다. 하나님께 돌아오라. 지금 예배 드리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언약을 잡은 예배가 되길 바란다. 모든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약속의 예배가 되길 바란다. 성경에는 중요한 부분에 대해 말씀하셨다. 히스기야가 큰 위기를 만났다. 큰 나라가 쳐들어왔다. 조그마한 유다로는 도무지 불가능했다. 성전에서 기도했다. 처음에는 인본주의였다. 하나님 뜻이 있으니 인본주의 써도 먹히지 않았다. 결국 하나님 앞에 무릎꿇고 기도했는데, 그 날 저녁에 앗수르 군대를 썩 정리하셨다. 우리에게도 이런 기적이 종종 일어난다. 베드로가 잡혀서 감옥에 잡혀 들어갔다. 기도하니 하나님이 옥문을 여셨다. 동일한 약속이 우리에게 와있다. 믿음으로 언약으로 잡고 기도하라. 평생을 두고 누리도록 약속하셨다. 정복하고 수많은 제자를 찾는 우리들이 될 것이다.

1. 헛되도다

인생의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이다. 그냥 지나가는 거지가 이런 말을 했다면 잘 못 믿겠지만 솔로몬은 사람으로서 가장 훌륭하게 살았던 사람이 인생 살아보니 헛되다고 했다. 설명을 했다. 3절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우리에게 유익한게 별로 없다고 5절에는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땔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거 6절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7절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힘쓰고 애써도 소용없고 8절에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촉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차지 아니하도다

9절 이미 있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것이 없나니 10절 사이에 해아래는 새것이 없다고, 우리가 있기전에 늘 있었던 것이라고 결국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봐도 변화되는 것은 없다는 것이다. 우리가 노력, 발전을 해도 근본적인 것은 변함이 없다. 그래서 솔로몬의 결론은 우리의 노력은 필요없다. 결국은 사실은 의미 없다는 뜻이다. 다 죽자는 뜻은 아니다. 쇼펜하우어 철학자는 결정적인 소리를 했다. 사람은 태어나지 않는게 제일 좋고 태어났으면 빨리 죽는데 낫다고 하는 소리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는 사람이 많았다. 본인은 장수하려고 냉수마찰하다가 72세에 죽었다고 한다. 심장마비로 죽었다고 한다.

오늘 솔로몬은 이런 부정적인 소리를 하려고 한게 아니고 우리의 노력으로는 아무런 변화없기에 하나님께 와 언약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허무할 것이라는 뜻이다. 이 단어를 부정적인 단어로 받는 사람은 없겠지만 부정적인 소리가 아니다. 아무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쇼펜하우어가 한 말이 맞다고 해도 아무런 도움이 안된다.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한 개 언약의 말씀으로 소망의 메시지를 주는 것이다. 그것 말고는 인간에게 아무런 소용이 없다. 인간은 저주에서 해방되고 운명을 바꾸어야 하고 운명을 바꾼 언약으로 살아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답이다. 어느날 인생이 회복이된다. 우리중에 증인들이 상당히 많다. 다시한번 우리가 언약이 무엇인지 알아야 할 것이다.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 저주에서 해방이다. 그런데 다시한번 그것을 생각하고 각인하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 만일 언약을 성경이 말한대로 알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면 현장에 나타난다. 그 증거들이 없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유지하겠는가/ 언약은 그리스도의 보혈이다. 이것이면 네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는 하나님의 선언이다. 먼저 지옥가는 문제 이것으로 해결한다. 그게 구원이다. 지옥은 아무 노력을 안해도 자동적으로 가게 되어있다. 아무리 나오려고 해도 자기 힘으로는 절대 안되는게 원죄이고 사단의 힘인데 여기서 나오는 것이 그리스도의 보혈이다. 뿐만 아니라 원죄 이후에 수많은 육신적인 문제가 계속 와도 해결할수 있는 언약이라는 것이다. 이것이 발견이 되어지고 눈이

열리는 축복이 있기를 바란다. 네가 만약 이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 네가 네 문제를 해결 하겠다는 말이다. 이것이 내 언약이다. 그러면 네 저주에서 나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는 해방을 누리게 될 것이다. 사단의 머리가 깨지는 것을 평생을 두고 볼 것이다. 이것이 내 언약이니까 다시한번 잡고 마음에 심으라 마음에 심어주시라고 기도하라. 이렇게 사는 사람은 부족해도 하나님의 증거를 보게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성경을 잘보라 내가 네게 준 책 아니냐 나는 이 책대로 한다 의심하지 말고 언약으로 잡아라 부정적인 생각을 말라 나는 전능하고 나는 무엇이든지 가능하기에 의심하지 말고 언약으로 잡으라 성경전체의 결론이다. 부정적인 일들도 일어났지만 결론은 거기에 잡히지 않았다는 것이다. 모든 것이 과정이라는 뜻이다. 네게 있는 모든문제 나는 가능하다. 이 언약의 피를 이 해를하고 누리고 잡고 고백하라 그러면 네 인생을 작품으로 만들겠다. 증인은 성경에 있고 우리중에 많이 있다. 이런 인생을 사는 사람은 성경에 말한대로 100년의 응답이다. 1000년의 응답도 받는다. 기생 라합을 생각을 해보라. 생각하나 바뀌었는데 1000년의 응답이다. 놀랍다. 한나 어느날 생각이 들어왔다 어떻게 되었는가? 이런 일이 일어날 수있다는 말이다. 믿어야 되고 생각해야 되고 기도해야 한다. 내게 언약으로 들어오면 무슨일이 일어나도 거기에 무릎을 꿇지 않는다. 언약 때문에 하나님 자녀가 되었는데 문제앞에 무릎을 꿇겠는가 죽어도 그럴수는 없다. 하나님앞에 무릎을 꿇고 언약잡고 기도해야지.. 그래서 세상은 답이 없다 오히려 세상의 모든 것은 사실은 헛되다는 것이다. 너의 언약이 이 눈에서 출발한다는 것이다 기도해보시라 생각을 해보고 정리를 해보라. 세상의 모든 것은 헛되다고 했다.. 우리는 언약에 오직이 되어야 한다. 이러면 반드시 유일성응답온다. 70억인구가 산다 만약 이들이 언약이라면 전부다 유일한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하실수 있고 재창조의 응답을 받을 수있으니 다시한번 언약을 생각하고 인생전체를 생각하라. 알고있는데 내게 안들어오면 못한다. 대표적인 인물이롯이다. 알고있지만 들어와 내것이 안되고 언약이 안되니 안했고 못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롯과는 천지 차이의 인생이 된 것이다.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나도 알게 해주시고 내게도 이것이 언약이 되게 하시고 언약의 피 십자가의 피가 눈이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믿고 행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이미 답은 완성이 되었다. 더 이상 다른 것 필요없고 한번 더 하실 필요없다. 이 말은 공은 우리에게 넘어왔다는 것이다. 이제는 그 공을 치느냐 안치느냐 달려있다. 진짜 마음에 발견되어지는 축복이 오늘 있기를 바란다.

2. 전도자

1절에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왕 전도자로 말했다. 나는 이 놀라운 언약을 전달할 사람이라는 뜻이다. 언약이 전달되어지면 그 현장은 반드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다. 모든 사역자들은 이것을 다 보았을 것이다. 한가지 달려있다. 이것을 전달을 하느냐 안하느냐 상황은 필요없고 가서 말만하면은 하나님은 역사 하신다는 것이다. 어떤 분들은 오랫동안 이 복음안에서도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갈등, 진짜인가 싶은분이 어느날 한 사건을 통해서 성경이 말한 것이 믿어지는 것이다. 우리중에도 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일어날 것이다. 기도했는데 응답이 나타났다는 것은 놀라운 것이고 기적이다. 나는 아무것도 안하고 입으로 말만했는데도 증거가 나타났다는 것은 기적이다. 작은 것이라고 해서 무시하면 안된다. 원리를 따져야지.. 아무리 작은것이라도 공짜로 되어지는 일이 어디있는가 작은일이 되어지면 큰것도 되어진다는 당연한 믿음도 생긴다. 그래서 이런 증거들을 볼때마다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있다. 진짜 복음만 전해야 된다. 무슨 일이 있어도 부저적인 소리는 안해야 한다. 이런 증거를 볼때마다 생각을 한다. 어느날이 있다는 것이다. 그날이 오면 나와 상관없이 역사 일어난다. 이것을 절대 잊어 버리면 안된다. 자기 자신에 대하여도 절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면안된다. 노예로 팔려가 요셉에게 너는 이제 끝났다고 말하면 정확한 말이지만 틀린 것이다. 총리로 가는 길 이기에 그렇다. 그에게 아무런 도움이 안되는 말이다. 그 말을 한 자신에게도 도움이 안된다. 결국은 너나 할것없이 순간적으로 사단

의 역사만 허락한 것이다. 이런 소리를 왜 하겠냐 이말이다. 우리 중에는 혹 나는 상처가 많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 어떤 분은 자존심이 강하다. 어떤 분은 이런 저런 부분중에 남들보다 뛰어난 사람도 있는데 이런 부정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다. 주의하라. 전도자, 사역자들도 주의 하라 완전한 사람은 없다. 항상 자신을 돌아보라. 나를 돌아보고 내가 갱신해야 한다. 잘못된 것 있으면 회개하고 마음을 다시 잡아야 한다. 이런 일들이 계속 지속이 되어야 한다. 한번만에 되는 일이 거의 없다. 혹, 그런 말을 한 사람이 있다면 용서해야 한다.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참 기뻐하실 것이다. 이런 것은 전도자가 가질 기본 자세이다. 사람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기다려 줘야 한다.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상대가 내게 문을 연다. 이런 부분에 다 부족하니까 회개해야 한다. 나를 돌아보아야 하고 갱신도 해야 한다. 만일 이렇게 살면 전도 선교가 일어나게 될것이고 인생의 문이 열리게 된다. 사람을 통해서 열린다. 그리고 제자도 일어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해도 시대적인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다. 하나님은 더더욱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시길 믿는다. 언약을 아는 자라는 말은 대단한 말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권세를 가졌다는 말이다. 당연히 절대 낙심하지 말고 승리하고 정복해라. 누구든지 언약을 잡은자 100년의 응답을 누릴 수있다. 우리는 이 복음운동을 통해서 미국과 남미에서 1000년의 응답을 받을 사람들이다. 우리 인생 진짜 작품이다. 이런 근본 약속을 가진 놀라운 자들이다. 다시한번 언약 잡기를 바란다. 교회는 사람들이 모이기에 여기저기 문제들이 있을 수 있다.그런 문제를 두고 혼자 조용히 기도하고 내가 감당할 수 있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얼마나 아름다움 자세인가 비난보다는 문제를 해결 하는일에 내가 과연 무엇을 해야 할것인지를 생각하는 것이다. 이런 저런 소리나 도음 안되는 소리에 잡혀있을 이유가 없다. 그냥 의미 없이 왔다갔다 하는사람이 되어서는 안되고 시대적인 사명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복음의 눈이 열린 사람은 이 사명을 가지게 되어 있다. 눈을 뜨고 답을 내는 것이다. 그래서 인생이 살아나는 중직자 전도자, 램넛트가 되어야 한다. 우리는 인생을 능동적, 역동적으로 살아야 한다. 그냥 은혜만 받다가 천국 가면안된다. 전도는 한명도 못해보고 천국 가면 안된다. 그 흔한 영접한번 못시키고 천국 가서는 되겠는가? 우리가 언약을 누리면 하나님이 우리인생을 키워주신다. 인생의 여정을 살아주신다. 복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큰 경제도 주신다. 작품을 만들게 하신다. 100년의응답 1000년의 응답을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고 언약을 딱 누리면 하나님이 인생을 키워 주신다. 사람들이 무슨 소리를 한다면 왜 거기에 눈을 돌리겠는가?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안에 있는 소원을 생각하기를 바란다. 누가 뭐래도 우리는 언약을 가진 시대적인 전도자이다. 우리는 미국을 시대적으로 살리라고 시대를 살리라고 우리를 부르셨다. 우리는 남미 시대를 살리라고 우리를 부르셨다. 마16장 앞부분에 나는 시대의 표적이라고 하신곳이 있다. 예수님이 시대의 표적이고 우리는 미국의 시대의 표적 이 시대의 모든 미국 사람들은 우리를 봐야 한다. 우리를 따라와야 하고 살수 있다. 남미의 모든 사람들도 우리의 복음을 따라와야 살수 있다. 이 복음이 시대의 표적이고 그들의 표적이다. 믿습니까? 복음을 이해를 하면 이런 생각이 내 마음의 자리를 잡는다. 나는 언약하고 부족하지만 시대의 표적이다. 미국의 시대의 표적이다. 이 사람들이 무엇을 말하던지 필요없고 나를 따라와야 산다 나는 시대의 표적이다. 이것이 복음이다. 복음을 이해한자는 땅에 모든 것을 뛰어넘는다. 땅에 있는 인간위에 있는 사람이다. 복음있는 사람이, 복음의 사람이니까, 남미는 내가 살리는 것이다.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이것이 우리가 잡을 답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시대의 표적으로 부르신 사람들이다. 시대적인 복음을 주셨으니까 마음에 담고 언약이 되어 우리의 정체성이 되기를 바란다. 나는 필요없고 나는 시대적인 표적이다.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필요없고 하나님이 나를 이 시대의 표적으로 부르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이고 이 언약으로 살아야 하고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이 언약으로 살게 되어 크게 살게 하시고 작품으로 살게 하신다. 이것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 일을 완

성하셨다. 그는 하나님이니 누가 이 일을 막을 것인가 내 자신도 여기에 대하여 부정적인 생각을 할 필요가 없다.눈에 보이지 않지만 시대적인 표적이란 언약을 미국을 살릴 언약을 어떻게 알수 있는가?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필요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뿐이야 그것이야, 오늘도 세상의 것으로 사는데 불과하고 사실은 의미 없다. 그게 오늘 솔로몬의 고백이다.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다 알지 않은가 그렇게 살아보았는데 사실은 헛되다. 하나님외에는 전도, 언약외에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것이 진짜 발견되어지면 답난 사람이 된다.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고 눈이 열리면 답난 사람이 된다. 그 사람은 절대 무슨일이 있어도 무너지지 않고 세상에 어떤일에 무릎을 꿇지 않고 내일 죽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한다. 나는 하나님의 이시대의 표적이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전도자야 절대로 무릎을 꿇지 않고 발견되어져야 하고 아는 것이 아니고 보여져야 한다. 하나님 나도 보게 하여주옵소서. 그러면 롯과 같이 절대 살지 않지 오늘 이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살라고 반대편 이야기를 했는데 헛되도다 거기는 가봐야 헛되니까 돌아와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알잖아 그렇게 하지 말고 돌아와, 어떻게 돌아오는가? 방법은 발견이다. 이미 완성되어 있다. 바뀌지도 않고 완전하다. 모든 문제 해결이다. 그정도가 아니고 정복이다. 그정도가 아니고 작품이라니까 이 작품을 위하여 100년의 응답이야 이 작품을 위하여 진짜 1000년의 응답이야 이것이언약이야 하나님이 이것이 내 언약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것이 내 눈에 들어와야 한다. 하나님 눈에 들어오게 하시고 나도 발견하게 하옵소서.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언약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것을 위하여 오늘 솔로몬이 1장에 이야기 하기를 헛되니까 거기 가지마 시간낭비에 불과해 내가 다 해봤어 그게 솔로몬의 이야기다. 진짜 답되기를 바란다. 생각을 해보라 지속을 해보라. 이것이 서밋타임이다. 그때 발견되어지만 사람이 달라진다. 눈이 열리게 되면 사람이 즉시로 다른 사람이 된다. 한나가 이것을 발견하고 다른 사람이 되었다. 기생 라합이 이것을 발견하니 완전히 다른 사람이되었다. 아직도 과정이고 찾지를 못했고 눈에 보이지 않는다면 그런데 사랑해 복음 너무 좋고 감사해 그런데 아직도 내것이 아니야 무엇인가 멀리있고 잡을것이 있어 이것이 우리의 대부분의 상황이고 기도제목이다. 발견되어지면 사람이 바뀌어 진다. 다른 사람이 되어버린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롯을 비교해보면, 아브라함도 그렇게 발견되어진자는 아닌데 그 언약의 피제사를 계속 하다가 어느날 눈이 열렸다. 모리아산에 제사를 드리는 날이 온 것이다. 그전에 개인적으로 답난 적이 있다. 100세에 아들을 나온 것이다. 완전히 둘다 포기했는데 아이가 나왔어 완전히 뒤집어 진것이고 발견되어진것이고 진짜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된 것을 확인하고 다른 사람이 되었다. 이후에 16년뒤에 아들을 바치라는 일에 바로 모리아산으로 가셨다. 100세 이전에는 언약을 모르고 웃기만 했다. 그런데 이제는 완전히 질문없다. 바로 출발했고 사람들에게 말도 안했다 혼자 언약잡고 갔다. 그게 발견한 사람이다. 이렇게 되어야 한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을 받았고 이것이면 된다는 증거를 받았다. 알겠는데 아직몰라. 아직 내것이 아니야 이것이 기도제목이다. 이것이 진짜 출발선이다. 그냥 복음메시지 듣는게 좋아 참 귀한 일이다. 그러나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평생 그정도 수준에 살다가 간다. 돈 안들이고 기도하면 되는데 왜 그냥 있겠는가? 오늘 다시한번 마음에 담기를 바란다. 헛되도다 헛되다고 말했다. 가지 말고 돌아오라는 것이다. 그래서 문제는 언약으로 해결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권면이다. 너 네 혼자 날뛰지 말고 언약으로 해결하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냐? 해결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내게 가져와라 언약외에는 사실은 답이 없다는 것이 인생 역사의 결론이다. 사실은 언약외에는 안되고 답없다는 것이 인생 역사의 결론이다. 성도여러분 다시 한번 눈 열리는 축복이 있기를 바라고 그냥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있으라 그냥 좋으것 참 귀한것인데 거기 머물러 있으면 안된다. 정말로 기도하는자에게 응답이 있기에 하나님앞에 기도하는 것이다. 다시 한번 눈이 열리고 결론 나기를 바란다. 결론 나면 자동으로 따라오게 있다. 하지 말라고 해도 따라오게 결단이다. 결론 만나서 결단 안나는 것이다.